

‘엉터리 행정’에...5·18교육관 전기차 충전시설 무산

광주시, 주차장 확장공사 때 행정 절차 누락...주차면 63% 등록 안돼 100개면 확보하고도 당시 설계도면 못 찾아 충전시설 확충 사업 불발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 교육관 부설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으려다 ‘엉터리 행정’ 때문에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8년 전 주차장 확장 공사를 하면서 행정 절차를 누락해 주차장의 63%가 서류상 등록되지 않은 ‘유령 주차면’으로 남은 것이다. 더구나 확장공사 당시 설계도면을 찾지 못해 시정도 못 갖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최근 추진하려고 했던 5·18교육관 부설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18일 밝혔다.

주차면수 100개 면 이상을 확보하고도 서류상 문제로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18일 현재 5·18교육관에 실제 설치된 주차면수는 총 102면이다. 광주시는 지난 2016년 5·18교육관을 기존 2층에서 4층 건물로 증축한 데 따라 주차장 확장 공사를 시행, 기존 38면에서 102면으로 증설했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공공이용시설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면수가 50면 이상일 경우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된다.

하지만 관할청인 서구에 등록된 건축물대장에는 이곳의 주차면수가 38면으로 등재돼 있다.

확인 결과 주차장 확장 공사를 담당한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중견)가 준공 이후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 신청을 누락하면서 주차장 64면이 8년째 미등록 상태다.

서류상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주차 면수를 충족하지 못하니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할 명분조차 사라진 상황이다.

서구 관계자에 따르면 증설된 주차면수 표시변경

을 누락한 것은 불법사항은 아니다. 건축법상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바 없으며 별다른 제재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주차장 소유주가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서만 내면 순쉽게 시정할 수 있다는 것이 서구 관계자 설명이다.

문제는 광주시가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찾지 못해 신청조차 못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5·18교육관 관계자는 최근 신청서에 첨부할 자료로 종건축에 증설 당시 공사에 참여한 건축사무소 직인이 찍힌 준공도면을 요청했으나, 종건축은 ‘도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전달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중견 관계자는 “준공도면은 시공사나 감리자로부터 문서나 USB로 제출받는데, 8년 전 자료들을 일일이 확인해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더구나 2021년 종건축이 화정동에서 치평동으로 이사를 하면서 집이 일부 섞이고 담당 직원도 바뀌어 찾기가 더욱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해명했다.

결국 광주시는 미등록 주차면을 그대로 두고, 추후 이곳에서 별도의 공사가 이뤄질 때 한꺼번에 등록하겠다는 미봉책을 마련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8년 전 도면인데 어디 있는지 못 찾는다니 황당하다. 종건축에서 도면을 보내주지 않으면 등록을 할 수가 없으니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며 “아예 5·18교육관 옆에 들어설 예정인 5·18기록관 수장고가 완공된 이후 주차장 면적을 조정하고 새로 건축물대장을 수정하는 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



18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민주화운동 교육관 부설주차장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이 곳 부설주차장 주차면의 63%는 서류상 미등록 주차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함평주민 제기 ‘한빛원전 수명연장 공청회 중지’ 가처분 기각

항고 등 추가 법적대응 검토

법원이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중지하기 위해 함평 주민 1400여명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함평군민들은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추가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빛원자력본부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민사1부(재판장 김경훈)는 함평군 주민 1421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한빛원전 1·2호기 방사성 환경영향평

가서 초안 주민 의견수렴 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16일 함평 주민들은 “한수원이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중대사고를 고려하지 않은 초안을 작성하는 등 주민의 안전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모든 주민들이 알수 있는 초안을 만들어 공청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민공청회 중지를 요구하고 가처분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과 기타 관련 법령에 방사성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중지하거나 이를 특정한 방식으로 진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의견수렴 절차 중지를 요구할 만한 민사상 쟁점 권리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함평주민들은 항고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한수원은 한빛원전 1·2호기가 40년의 설계수명이 오는 2025년으로 끝나지만, 폐로를 하지 않고 10년간 수명연장 운영을 하기로 하고 공청회 등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영광과 고창 주민들이 반발함에 따라 주민공청회가 지난 15일, 17일 각각 무산됐다. /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r

대법, 동성커플 법적 권리 첫 인정

“사실혼 관계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순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

소씨는 동성 반려자 김용민 씨와 2019년 결혼식

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이에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이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소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작년 2월 견보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이 동성 부부를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잘못됐다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관련 시민단체들은 당시 “한국 사법부가 최초로 동성 부부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라며 환영했으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기도 했다. /연합뉴스

쾌적한 대촌 들녘에서 캠핑하세요

남구, 월산 근린공원·농촌테마공원 야영장 ‘속도’ 월산 10월 오픈...농촌테마공원 12월 완공 목표

광주시 남구의 월산 근린공원과 빛고를 농촌테마파크에 야영장이 조성된다.

남구는 올해 말까지 월산 근린공원과 빛고를 농촌테마파크에 각각 야영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월산 근린공원 야영장은 오는 8월, 빛고를 농촌테마파크 야영장은 9월 착공한다.

월산 근린공원에는 21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

해 글램핑장 7개동과 주차장 40여면 등을 조성한다. 야영장은 오는 10월 중 오픈할 예정이다.

빛고를 농촌테마공원에는 사업비 10억여원을 투입해 야영지 16개와 샤워실, 화장실, 취사장, 분리수거장 등을 조성해 오는 12월 완공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빛고를 농촌테마공원 야영장은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만큼 대촌 들녘과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남구를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

광주문화신탁이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